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s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발행인 : 김경호 편집인 : 문혜성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42 호 < 2014. 12 >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

◎ 2014년 의학전문대학원 현장방문평가 실시



2014년 10월 19일(일)~23일(목)동안 본 의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현장 방문평가를 받았다.

서헌석 평가단장(대구

가톨릭, 진단검사의학)을 비롯하여 임창영(차, 흉부외과), 심서보(건국, 환경생물의학교실), 장혜원(성균관, 의학교육학), 안영준(조선, 의학교육학), 박종훈(고려, 정형외과), 김성용(영남, 생화학)교수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원을 포함하여 가톨릭, 경상, 동아, 부산, 순천향, 원광, 인제, 전남, 전북, 중앙, 한림, 한양대학(총 13개 대학)의학교육이 2014년 평가인증 대상으로 지난 7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서면평가에 이어 현장방문평가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201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후교육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97개의 기본 기준항목과 43개의 우수기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의전문원은 백희정 자체평가총괄위원장과 문혜성 기획부장의 주도하에 각 영역별 자체평가위원(대학운영체계: 한재진 교수, 기본의학교육과정: 성연아 교수, 학생: 유경하 교수, 교수: 이화영 교수, 시설·설비: 장중현 교수, 졸업후교육: 정우식 교수)을 포함 총 27인의 자체평가위원과 류동열 자체평가위원회 간사, 20여명의 보직교수, 학생대표단 및 평교수대표단, 10여명의 행정직원이 참여하여 현장방문평가에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였다.

본 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장평가 직후에 평가인증 개선점 정리 및 개선방안 모색회의를 통해 각 영역별로 현장평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전임 정성민 의전문대학장과 자체평가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이 2년 전부터 준비해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전문 발전에 지속적으로 지원 해 주신 의료원장, 병원장 및 병원 보직자들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해 평가단의 조언이 향후 의과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자침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는 2015년도 1월말 경 공개될 예정이다.

◎ 의학전문대학원장, 의학전문신문 기자간담회 개최



2014년 10월 8일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5개의 주요 의학전문지(의계신문, 병원신문, 후생신보, 의사신문, 의학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화의대의 2020년 TOP5 의대로의 도약을 목표로 신촌-목동-마곡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의생명과학 융합 복합 연구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계획으로 시설과 커리큘럼, 교육 지원과 연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포상제도 복안 마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대학생처럼 강의를 듣고 캠퍼스를 돌아볼 수 있는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인 'High-Ewha, Hi-Ewha'를 개최하고 '이화의대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수 학생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 등을 제시하였다.

◎ Rutgers University 관계자 본원 방문



10월 20일(월) Rutgers University의 국제교류 관계자 2인(Dr. Kathleen Scotto 와 Dr. Debabrata

Benerjee)이 본 의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고 본원에서는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조수진 기획차장과 주용 교무차장이 배석하였다. 이날 방문을 통해 양 대학 간 학생/연구 교류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본교 국제교류처와 함께 Rutgers University와의 MOU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의예과 부활... 마곡 제2부속병원(2017년 건립 예정)서 의학도 꿈 키워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예과를 부활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인문·자연계열 수험생 모두 지원 가능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였다. 목동병원(800병상)이 연구중심병원이라면, 추가로 마곡에 신축하는 제2부속병원(2017년 건립예정)은 임상중심병원으로 총 1000병상을 갖춘 여성 환자 친화적인 국제 메디칼 허브병원을 표방한다. 병원뿐 아니라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전용 기숙사도 신축할 예

정이어서, 의예과 학생들은 본교 신촌캠퍼스에서 2년간 수학 후, 본과는 최상의 면학환경이 주어지는 마곡의 신축 의과대학에서 학습하게 된다.

◎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



'2014학년도 2학기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1월 12일(수) 의학관 A동 의전원장실에서 열렸다. 김경

호 의학전문대학원장, 임원정 학생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이혜선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김병순 후원자는 매학기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전문생들을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12월 4일(목) 2015학년도 정시모집 M.D.과정(의무석사과정)과 M.D.-Ph.D.과정(의무석사/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015학년도 총 선발인원은 76명으로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35명, 특별전형에서 3명을 이미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37명, 특별전형 1명을 비롯하여 총 38명이 합격하였으며, M.D.-Ph.D.과정 지원자 중 총 2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출신계열별 분포 조사에서는 생물학 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공대, 자연대, 화학계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에서는 외국대학출신 우수자 전형으로 1명이 선발되었다.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전공과 뚜렷한 동기를 지닌 최고의 인재가 균형있게 선발되었다."며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내외 글로벌 의료를 선도하며 국가와 세계 인류에 봉사할 큰 꿈을 펼칠길 바라고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외의료봉사

◎ 2014 하계 EMC in Cambodia

(의학전문대학원 김진아)

정신없이 하루하루에 일회일비하며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처음 의전문에 입학하기 전에 결심했던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했던 소망이 어느덧 아련해지고 있었다. 기말고사 직후에 출발해 3주 남짓한 방학 중 1주를 할애해야 한다는 점이 EMC를 지원하기 전까지 나를 망설이게 했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며, 참가를 독려했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다.

연이은 학교 일정으로 출발 당일 오전에야 개인 트렁크를 겨우 싸

는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무사히 EMC 봉사단의 일원으로 8박 9일의 첫 발을 떼게 되었다. 인천 공항에서의 설렘과 막연한 두려움을 뒤로 하고 도착한 캄보디아는 후텁지근하고 습한 밤공기로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다음날 현지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방문 후 캄보디아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Toul Sleng Genocide Museum'을 다녀온 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마음이 들었는데, 헤브론 병원 봉사팀과 작별을 하고 프놈펜에서 한 시간 반가량 떨어진 우리 팀의 봉사지인 이화 스랑 학교로 향하는 동안, 비포장도로를 지나며 차창 밖으로 마주쳤던 마르고 하얀 소의 구슬 같은 눈과 들에서 놀다 우리 차량에 손을 흔들어 주던 어린 친구들의 웃음과 큰 논밭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그날 밤 늦선 방 이층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3일간의 봉사 에 대한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째 날 외과 진료 보조를 맡았는데 환자들을 원활하게 진료실로 안내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마른 사람들인데도 식습관 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하여 시력을 잃는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둘째 날은 교수님들이 진료를 보시기 전에 간단한 증상을 체크하고 주소(Chief complaint)를 파악하여 해당 과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접수 업무가 주된 일이었다. 접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뒤의 진료가 밀리고, 약국이 지체 되어 많은 봉사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환자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친절하게 환자들을 대하지 못한 점이 미안함으로 남았다. 아직 모르는 것 많은 학생이지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예진 차트를 작성해서 더 신속한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다. 기말고사 전부터 이어진 학기의 누적된 피로 때문인지 결국 그날 밤 몸살감기로 고생하였는데, 쉬지 않고 진료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손수 진료 해주신 문영철 교수님과 간호해주신 조윤경 간호사 선생님, 걱정해주 학생 단원 친구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다시금 전하고 싶다.

셋째 날은 약국 업무였는데 처음에는 조제하는 일이 숙달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차 일이 손에 붙으면서 신들린 듯 약을 전투적으로 조제하던 기억이 이제 유쾌하고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교수님들의 처방전을 해독하여 약을 조제하면서 이 처방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날은 언제 일까, 이런 나도 결국에는 의료인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난다. 3일간 이화 스랑 학교에서 봉사를 하며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에 놀라웠고, 오랜 시간을 불편하게 지내온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곤 했다. 처치하기 열악한 상황임에도 환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시는 외과 교수님과 끊이지 않는 환자들을 꼼꼼히 봐주시는 내과 교수님을 보면서 감동하였고 나도 훗날 저런 자세로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었다.

'언제 이 날이 다 갈까' 생각했던 3일의 진료가 어느덧 '더 열심히 할 걸'이란 아쉬움을 남기며 바람처럼 지나갔고 아직 어색함이 있었던 단원들과도 더위와 땀 속에서 같이 고생하다 보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금세 친해졌던 것 같다. 하루 일과 후에 숙소 테라스에 모여 모기향 아래에서 나눠 먹던 열대 과일, 같이 나눴던 즐거웠던 대화, 까만 하늘을 가득 채운 은하수는 어느덧 바쁜 학기 중에 문득 문득 떠

올리며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열흘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난 8박 9일이 꿈같이 느껴진다. 잠시나마 망설였던 시간들이 미안하고, 더욱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파상적인 표현으로 들리겠지만 내가 주고 온 것 보다 얻어 온 것이 더 많아서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 다시 바쁜 일상에서 순간순간을 살며 문득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기분이 들 때 마다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마음을 떠올리며 초심을 기억해 낼 수 있길 소망해 본다.



학생 및 교수 소식

[학/생/소/식]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2014 행림제 개최



10월 24일(금), 의학관 김옥길 홀에서 이화 의학전문대학원의 축제인 '행림제'가 진행되었다. 46대 학생회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약 16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는 의학전문대학원 동아리인 화검랑, 에프드, 8seconds, infrared의 멋진 공연이 펼쳐졌고, 2부에는 장기자랑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로비에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낸 물품을 이용하여 경매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회에서 만든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등 압화자를 돕기 위한 수익성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이대목동병원에 기부금 전달



12월 29일(월), 이대목동병원 부속회의실에서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임원정 학생부원장과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전원 학생회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축제인 행림제 기간 동안 학생회 주최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현재 담관암 투병

중에 있는 여성 암환자를 비롯해 저소득층 여성 암환자의 치료비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스스로가 건전한 대학 축제문화를 선도해 나가며 마련한 이번 기부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소/식]

* 산부인과학교실 주웅 교수,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한국학생회에서 초청 강연

산부인과학교실 주웅 교수가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한국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보건의로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미국 보스턴 하버드보건대학원 한국 학생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회에서 주웅 교수는 '개도국 원조 사업에 있어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Management in ODA project)'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웅 교수는 '이중국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의료 인력 교육 개발 사업의 의미와 역할을 소개하고 의료 분야의 인적 자원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 보건의로 향상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 전수를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신경과학교실 박형준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향설연구비상 수상

신경과학교실 박형준 교수가 최근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향설연구비상을 수상했다.

박형준 교수는 '한국인 얼굴여개상완근디스트로피에서 변형 유전자(Modifier Gene)의 탐색'이란 연구 주제를 통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연구 지원금 1,000만원을 받은 박형준 교수는 "한국인 얼굴여개상완근디스트로피 근육병 환자에서 근력 약화에 영향을 주는 변형 유전자들을 탐색하여 질병의 발생 원리를 밝히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 『생명윤리와 법』의 제3판 출간

현대 생명윤리의 개념과 특징, 범주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는 개론서이다. 2005년 출간된 초판과 2009년 출간된 2판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요 주제를 살펴보고 현재 생명윤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윤리적 함의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비뇨기과학교실 심봉석 교수, 『남자는 털고, 여자는 닦고』출간

비뇨기과학교실 심봉석 교수는 남녀 생식기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의학상식을 소개하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생식기에 관한 기초지식부터 정자와 난자, 임신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중년 남성들에게 최대의 적인 전립선 이야기, 성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비뇨기과에 관한 의학상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의학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라 일반생활에

서 체험하고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료원 동정

* 이대목동병원, 심평원 중증질환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잇따라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폐암·대장암·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이 올해 처음으로 2013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폐암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에서 종합점수 99.68점을 기록하며 종합 점수 전체 병원 평균(94.65점)과 상급종합병원 평균(98.22점)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문 인력 구성 여부와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관련 부문 등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100점을 획득하며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4년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이대목동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와 기록충실도, 수술 부문 등의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폐암·대장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 앞서 심평원이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등급을 획득, 여성암 분야 국내 대표병원으로서의 위상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기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 동 약정 현황]

기금명	후원자	약정액
의과대학동창회(행림)장학금	한영자	3,000,000
	고은희A 양훈진	40,000 90,000
	김미영, 백희승, 백혜승, 신수아, 이경숙, 이윤하, 이훈주, 장혜숙	각 120,000
	윤수진 최금자	150,000 200,000
	김진희, 문인숙, 서한나, 송현주, 우명숙, 유신애, 이재현, 전영미, 최영신, 최현숙	각 240,000
	김정란	250,000
	오영	300,000
	지용실	350,000

알/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mmusik@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여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

백분익일의 나눔장학금	김성희, 김연선, 김영주, 김정애, 김지호, 김현숙, 박경숙, 박성희, 박혜숙, 백세연, 서란, 서정은, 신화자, 양나래, 이미애, 이영은, 이재옥, 정인숙, 차혜숙, 표영희, 김윤희, 허정원 박경란 안정숙, 주미련	각 360,000 각 400,000 450,000 각 550,000
	권정미, 김지나, 김경호, 김광주, 김보경, 김자영, 김정혜, 김종대, 김종원, 김지영, 김태경, 김혜숙, 김홍희, 김효신, 문경원, 문혜성, 박미연, 박선옥, 박승희, 박재옥, 박혜영, 방문혜, 배현아, 백승연, 서동혜, 서정원, 송인숙, 신혜원, 양선영, 오민화, 유경하, 유금혜, 유남수, 유동원, 유채섭, 윤명인, 윤석애, 윤석안, 이경자, 이남희, 이순재, 이승희, 이예경, 이용주, 이은영, 이지희, 이진숙, 이훈경, 임혜진, 전선희, 정미경, 정은희, 조영주, 조은아, 주재분, 최익숙, 피상순, 한경원, 한혜기, 황은미 김순화 백희정 김수경, 유정옥	각 600,000 600,000 960,000 각 1,100,000
	고은희B, 김금미, 김은주, 김진미, 김태임, 김현영, 남은미, 박연희, 박정선, 박혜영, 배기선, 배순희, 성시열, 송선희, 안혜선, 양미혜, 엄대자, 오양자, 오혜숙, 유영숙, 유박영, 윤혜원, 이순남, 이승주, 이재옥, 이혜영, 임석아, 임선영, 정은숙, 주문희, 한지윤, 허금희, 홍영미 김경미, 김예진, 우복희, 최현주	각 1,200,000 각 2,400,000 총 103,490,000
선배라면 장학금	계난이, 유경희, 정성애 이순남	각 120,000 480,000 5,800,000 총 6,520,000
내과학교실 발전기금	강현주, 김미연, 류민선, 조형원 이순남	각 875,000 5,000,000 총 8,500,000
이화-LG 의학교육기금	LG생명과학	50,000,000